정부 전폭 지원·관광명소 경기장 활용 지구촌 축제로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배경

경기장 시설·도로·수송 등 SOC 헝가리 정부 100% 지원

관광지에서 개막식 등 주요 행사 … 도시 브랜드 가치 높여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가 '지구촌 수영 축제'로 후끈 달아올랐다. 관광도시인 부다페스트에는 기존 관광객들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몰리면서 호텔 등 숙소가 동이 날 정도다.

부다페스트 대회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맞아 2500여명의 각 국 대표들과 마스터스대회 참석자 1만여명, 관람객 등 모두 35만명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헝가리와 부다페스트 조직위는 최근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테러 등에 대비해 각 경기장 마다 장갑차와 무장 군인, 무장 경찰 등을 배치하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다.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광 명소를 활용한 경기장 시설 등을 통해 관광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 대회 개막=지난 14일 개막한 헝가리 세계수영선수권대회(마스터스대회 포함)에는 총 182개국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해 31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7번째로 열리는 헝가리 대회는 애초 멕시코가 개최도시였지만, 중도에 개최를 포기하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따라서 다른 대회와는 달리 짧은 시간에 대회 준비 등을 마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14일 성대하게 개막식을 열었다.

주 경기장이 완공된지 2개월도 채 되지 않는 등 난관도 상당했다. 선수촌도 짧은 시간과 사후 활용 문제 등으로 건설이 어려워 별도로 짓지 않았다. 대신 관광도시인 만큼 호텔 등 숙박시설 객실 10만개 이상을 확보해 선수와 임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다페스트가 대회를 성공적으로 열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주경기장을 새로 건설하고 임시 경기장 시설, 수송 지원, 도로 신설 등 SOC에 대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100% 예산을 지원했다. 국제경기대회에 국비 지원이 인색한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점이다. 특히 대회 유치를 위해 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헝가리 정부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대회 준비가 진행된 것도 성공 대회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부다페스트 시민들과 헝가리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도 대회의 성공 개막의 요인으로 꼽힌다. 대회 준비와 대회 기간 중 자원봉사자 모집에 6500여명이 지원했고, 이 가운데 3200명이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중이다. 이들은 통역을 비롯해 수송, 경기장 안내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관광 명소를 경기장으로 활용=이번 대회의 특징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상당수 경기가 열린다는 점이다. 싱크로나이즈는 유네스크 세계문화유산인 영웅광장, 하이다이빙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인 다뉴브 강, 수구경기는 수구 유럽챔피언십 경기가 열린 마가렛섬, 오픈워터는 중유럽 최대호수인 발라톤 호수에서 각각 열린다.

개막식도 메인경기장이 아닌 부다페스트 도심을 흐르는 다뉴브 강변에서 개최됐다. 부다왕궁, 어부의 요새 등 다뉴브 강변 인근의 관광명소가 모두 개막식 무대가 되면서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는 수영대회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헝가리의 관광 명소를 전 세계에 알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전 세계에 개막식과 경기 등이 생중계 된다는 점에서 관광 도시 부다페스트를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스잔토 에바(Szanto Eva) 2017 부다페스트 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대회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웅광장 등 헝가리의 특별한 장소에서 열리게 된다"면서 "수영대회를 통해 얻게 될 도시 브랜드 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다페스트=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다뉴브강 개막식 지구촌 수영 축제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1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이 올랐다. 오는 30일 폐막식에서는 대회 개최를 2년 앞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등 조직위원들이 참석해 대회기 인수 행사를 갖는다. /연합뉴스

부다페스트 주경기장 인근에 마련된 광주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기 개최지 … 광주 홍보관 최고 인기

미디어아트·가상현실 등 첨단기술 주목

방문객 하루 100여명 한복체험·사진찍기

제17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홍보관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다페스트 주경기장 인근 스트리트 마켓(Street Market)에 마련된 광주 홍보관은 한국문화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선수단과 스포츠 관계자, 마스터스 대회 참가자, 언론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홍보관은 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를 활용한 'Dive into Gwangju', 'Dive into Culture' 등을 테마로 구성됐다. 특히 미디어아트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및 구글 틸트브러쉬(Tilt Brush·VR 기술을 활용해 가상의 3D 공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한 구글의 프로젝트)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조직위는 차기 개최 도시인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홍보관에서 볼거리·먹을거리·교통·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전시존을 운영하고 홍보영상을 상영중이다.

한복 체험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홍보관 방문객들이 한복을 입고 호남의 대표적 사찰 중 한 곳인 전남 구례 화엄사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이벤트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홍보관을 찾은 두짓(Duzit·체코)씨는 "유럽에서 K-pop의 인기는 단연 최고다.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말로만 들었던 한국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널리 홍보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영택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 사무총장은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광주가 '국제 문화스포츠'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다페스트대회 기간 중 광주와 광주대회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다페스트=글·사진 최권일기자 cki@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편

국정기획위, 100대 국정 과제 확정

한전공대 등 광주·전남 13건 포함

문재인 정부가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대국민 발표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공개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연내에 관련 법제화까지 마쳐서 공수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에는 검찰 개혁의 또 다른 핵심축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0대 과제에는 문 대통령이 업무지시 등의 형태로 주문한 민생밀착형 이슈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인 게 미세먼지 대책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줄이겠다고 한 만큼 이 내용도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맞물려 '탈(脫)원전 기조'도 100대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발전기술이 아닌 원전 해체기술 육성 등이 핵심이다.

환경 이슈 중에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비중 있게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 보를 개방하는 형태로 4대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추이를 지켜보는 동시에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서 해당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게 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후속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국방·안보 이슈의 경우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공약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임기 내에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독자대응체계는 '조기 달성'으로 명시했다. 국방개혁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전남지역 19건의 공약 가운데 한전 공대 건립, 에너지밸리 조성, 친환경자동차 부품단지 육성사업,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광양만 활성화, 광주 군공항 이전, 스마트 농업 육성, 선박 수리 등 조선업단지 조성 등 13건이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포함과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진상 규명 등도 100대 과제에 포함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일보 since 1952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불받아요!

빈용기보증금 상담전화 1522-0082
www.kora.or.kr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품목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2017. 1. 1. 부터 출고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 정종 등

!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